

About Lloyd's Register



로이드 선급 (Lloyd's Register, LR) 의 역사

로이드 선급 (Lloyd's Register)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17세기 영국 런던 Thames 강 유역의 한 커피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dward Lloyd가 소유한 이 Lloyd's Coffee House는 그 당시 해운활동에 관련 있는 화주, 선주, 해운관련보험업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왕래가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인인 Edward Lloyd가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해운관련정보들을 편집하고 인쇄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회람을 시켜 정보의 교환이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커피숍이 문을 닫게 되자 이곳에 모였던 고객들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260여년전인 1760년에 Register Society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것이 나중에 그 커피숍의 이름을 따서 Lloyd's Register of Shipping이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사업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그 이름을 Lloyd's Register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선급은 다른 선급들의 모태가 되었으며 로이드 선급을 필두로 1828년에는 프랑스선급인 BV, 1862년에는 미국선급인 ABS, 1864년에는 노르웨이선급인 DNV 등이 설립되었으며 1960년에는 비로소 한국에서도 한국선급(KR)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선급의 사업영역 및 조직구조

로이드 선급은 260여년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급의 존재에 있어서 주요 모토가 되는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해 견인차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주요 회원으로서 UN 산하의 IMO 국제해사규정들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으로써 국제 해상활동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로이드 선급은 선박 및 해운분야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상구조물, 산업플랜트, 에너지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그 서비스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산업 속에 내재된 기술 및 상업적 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독립적인 Advisory services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최고의 품질과 안전,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도하는 선급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로이드 선급은 현재 그 조직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약 180여개국에 걸쳐 195여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천명의 전문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이 관련 서비스영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적 선급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드 선급은 비영리단체로서 어떤 정부나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선급의 모든 정책 및 예산 등을 각 산업대표들로 이루어진 총회(General Commette)에서 결정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의 교육훈련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책임 있는 선급입니다.